



농어촌공사 제주본부 '행복한 진짓상'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서상기)는 지난 27일 제주시 삼양동 인근 농어촌 소외계층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를 묻는 사회공헌활동인 '행복한 진짓상'을 진행했다.

행복한 진짓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중고물품 나눔행사인 '탐나는 마켓'의 판매수익금으로 구입한 쌀을 도시락과 함께 전달하고 있다.

